

7월의

계란장마



송 상 정
(본지 편집위원
아람농장 대표)

◎ 개 황

6월에는 계란값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생산업자는 상당한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7월달로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가보다.

지난 3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이 되어 생산 숫자의 증가와 반면 일반 시중경기 침체로 소비 부진이 더욱 가중되는 것 같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생산자의 약점을 현명하게 대처해 어려운 국면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 생산측면

6월의 계란가격은 많은 폭으로 하락한 반면 노계값은 비교적 좋은 편이며, 상당한 도태를 하였어도 산란초기 사료생산량이 4월에 비하여 5월에 8t정도 증가한 것은 84년 8월부터 12월까지 초생추 입추수가 많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6월부터 30℃를 오르내리는 더위와, 7월의 장마와 고온은 계란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산란초기 생산량은 1월 77,229t 2월 77,319t 3월 83,301t 4월 85,700t 5월 85,708t이다. 6월의 생산량은 노계가 많이 도태되어서 10~1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병아리 사료

는 1월 2,423t 2월 2,541t 3월 4,041t 4월 4,925t 5월 4,230t이며, 육성계 사료 (중추대추포함) 1월 22,081t 2월 18,883t 3월 19,269t 4월 20,547t 5월 22,325t으로 전년 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 예상난가

7월의 난가는 학생들의 방학으로 일반 가정용, 공업용 모두가 수요의 감퇴가 예상되어 약세를 이룰 것이고 장마철로 접어들어 고온다습으로 인한 계란보관에 문제가 있어 상승 탄력치는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6월말 현재 계란의 상인재고와 농장재고는 없으나 장마가 오면 1회정도 난가가 하락되고, 중하순 이후 장마가 개이고부터 미약하나마 상승폭을 이루겠다. 장마철이 되어 상인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판매 여건이 불리한 생산자 측에서 덤핑 출하가 예상되니 계란보관 및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일부 생산 단체에서 150만개 정도 가공 비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에 어긋난 판매를 하지 말고 가공비축에 참여하여 난가 회복에 서로 협조하자. *